

대행 스님

보살행이라는 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질문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실천 수행 방법 중의 하나로 팔정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지킨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런데 이 올바르게 보는 것, 어떻게 봐야 올바르게 보는 겁니까? 이건 틀리고 이건 잘돼 있고 이런 거를 보는데 그게 올바로 보는 겁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하나를 봤을 때, 뭐,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한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 보는 것 때문에 한생각 하는 것도, 정사유도 동시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는 걸로 돌아간다. 보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보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정업, 바른 행동을 하게 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본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선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이랬는데 어떤 게 바르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건지,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그래서 '정명' 하면은 '바른 생활' 이러는데 바른 생활이 어떤 것이 바른 생활인지 난처하죠. 어떤 것이 바르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정정진, 바른 정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정진인지 줄창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른 정진이 어떤 것이 바른 정진인지 생각하시겠죠. 정념, 바른 의식입니다. 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이거 불편하고 산란해서 어떻게 삽니까? 첫 번에 정견, 보는 데서 벌써 정념으로 벌써 왔습니다. 보는 데서부터, 이게 처음에 단추를 위에서 똑바로 끼우면 아래까지 똑바로 끼워지는데, 위에서 하나를 어긋나게 끼우면 밑에까지 어긋나게 끼워지죠. 그렇듯이 이게 '정념, 정정'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른 의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의식이, 바른 의식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거를 똑 잡아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의식입니다. 정정! 이게 정정이라는 것이 "이름 없는 그 정에 모두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다 놓고 중심을 잡아라. 물러서지 말고 거기다 놓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말보다도 이렇게 써 놓으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 하나, 보는 거 하나 잘못해서 그 밑에까지 잘못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어떤 사람이 수좌들 다섯이서 공양을, 예전에는 공양을 구걸하러 다닐 때가 있었죠.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보니깐 자기 외에도 구걸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곤 "넌 저렇게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나같이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 '나' 라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죠. 나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있다 "게을러서 그렇다. 우리는 공부나 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저 사람네들은 공부도 하지 않는데 어째서 저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느냐.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얻으러 다니겠느냐." 하고 불쌍히 보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같이 봤다는 사람이 옳습니까, 저건 너무 가난해서 참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또는 저건 게을러서 그렇다는 하는 게 옳습니까. 그 보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가 그렇게 뒤끝까지 잘못되게 만들죠.

그런데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어두운데 길을 바삐 가다 보니까, 아주 도둑놈이 바삐 뛰어가는 거하고 바빠서 사람이 뛰어가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데, 그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뛸까?' 하는 생각을 그냥 금방 하게 되죠. 근데 보살이 어째서 도둑이 저렇게 뛰어가는 걸 모르고 바빠서 저렇게 뛰어간다고 했느냐 이거죠, 인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듣는다면 그렇게 인정 안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도둑은 도둑대로 봐야 하고 바빠서 뛰는 놈은 바빠서 뛴다고 봐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러겠죠. 그거 옳지 않겠죠. 그러나 보살행이라는 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도둑이든 도둑이 아니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 도둑은 도둑이 없어지죠. 무주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한생각으로서 스치기만 해도 그 무주상 보시로서 그렇게 공식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깐 무조건 둘로 보지 말고, 무조건 둘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아픔도 나로 생각하고 둘로 보지 말라 이런 뜻이죠. 둘로 본다면 만약에 외부에서 내 몸에 병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둘로 돼서 싸울 것이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도 그냥 하나가 돼 버리지 둘로 되질 않습니다.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안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조복을 받아라, 조복을 받아라" 이런 뜻을 갖느냐 하면 이 몸속에 있는 모습들도 모두 과거로부터 인연에 따라서 다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에 따라서 같이 사는데, 공생으로 사는데 그거를 공생으로 산다는 생각도 없고, 또는 둘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고, 또 더불어 같이 먹으니깐 내가 먹는다는 생각도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산다는 생각도 없고, 그 한마디에 말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로서 수없는 그 가지가지마다 아마 거기서 연결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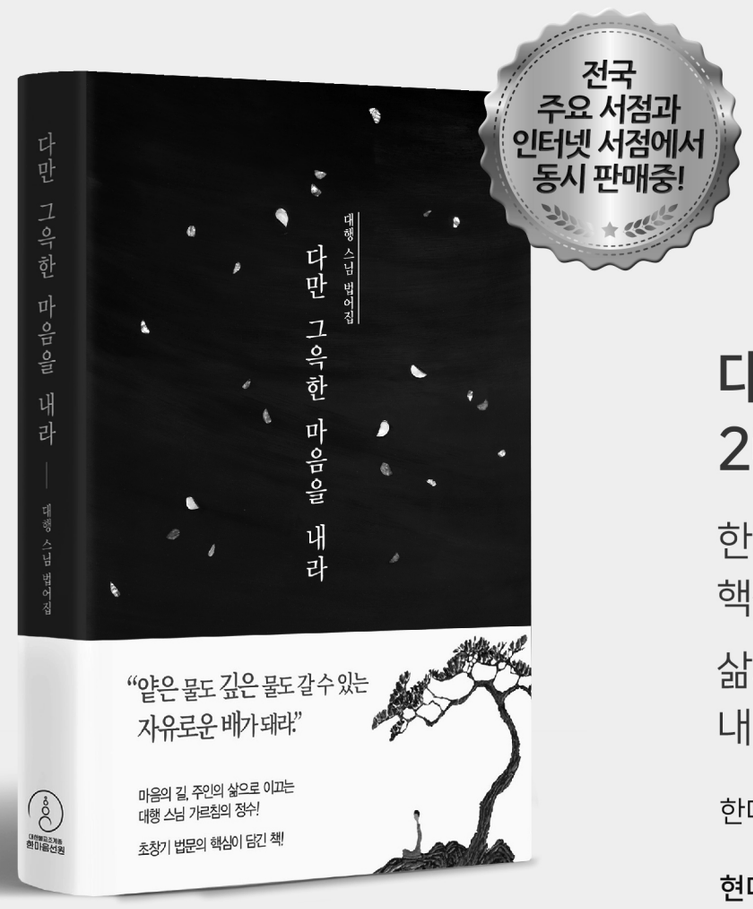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서 사실, 생각을 해 보세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는가. 잘나도 한 철 살고 못나도 한 철 사는데 한 철 살면서 내가 산 대로 그 모습도 또 차원도 삶도 모두가, 또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차원이 벌어져요. 쭉 연 걸리듯. 하나 생각 잘못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이 잘못돼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고 단추를 그냥 여기까지 끼웠어도 잘못 끼웠으면 다시 다 빼서 다 다시 끼워야죠. 어떤 때는 '세상에 잘나고 못난 사람이 지금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저렇게들 들서거리고 사는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는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세세생생에 자기의 근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너지도 자기가 맘대로 자유껏 쓰는 게 아니라 매여서 삽니다. 하나 매여서 사니깐 줄줄이 내려가면서 끝까지 매여서 사는 거죠. 하나의 보는 걸 잘못 봐서 생각도 잘못하고 말도 잘못하고 또는 행동도 잘못하고 생활도 잘못하고 모든 정진도 잘못하고 의식도 잘못되고, 정말 한마음 가운데다 한마음을 되놓듯이 그렇게 되놓아야 할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산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즉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사람이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식들이 조르르 앉았든 뭐가 앉았든, 자기가 못해 놓고 가든 잘해 놓고 가든 하여튼 죽을 때 가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일단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식화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이 되죠. 그거를 다 버리고 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뭐 남는 게 있다고 버리질 못하겠습니까. 인연도 말입니다, 인연을 모두 짚체같이 짚

☞ 22면으로 계속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